

황인각 저 | 흥성사

서평 <성도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내가 아는 황인각 교수는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거나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교회에서 결코 장외의 방관자나 생각없는 참가자가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되기를 소망하며 교회 내에서 일하고 호흡하는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각은 한 사람의 신앙인의 순수한 시각이며, 설교단 위에 있거나 교회의 각종 관리 지표나 집단의 영광이나 조직적 목표의 성취에 있지 않다. 그런 그의 눈에 정직하게 비친 한국교회의 풍경은 심각하다. 이 책은 그가 이 교회의 위중한 모습을 동료 신자들에게 고하는 글이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의 개혁을 말하나 어찌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다. 각자가 상처받거나 모순을 겪은 문제가 다르고 개혁이란 흔히 그 개인적 경험에 치중한 치유책을 가리키기 쉽다. 누구는 재정 운영의 문제를 말하고 누구는 설교의 문제를, 또 다른 누구는 제도와 리더십의 문제를 거론한다. 그러나 이 책은 보다 근본적이고 평이한 문제, 그런 만큼 결코 잘못되어서는 안 될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제자되기와 교회 생활 사이에 오늘날 둔각의 각도가 벌어진 것을 그는 아파한다.

이 책을 읽으면 진리란 오묘하기 이전에 정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추구함이 정대하지 못하면 실행의 오묘함은 차라리 독이 된다. 복음이 바르지 못하면 감동적인 설교는 독이다. 수학 문제에 비유하자면 틀린 식을 적용하고서 계산만은 소수 이하 5자리까지 정밀하게 해도 소용이 없고, 옷 짓기에 비유하자면 재단이 잘못되었는데 꼼꼼한 바느질이 옷을 살려낼 수 없는 것

윤완철 카이스트(KIAT) 지식서비스공학과 교수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 이사로 섬기고 있다.

과 같다. 교회가 예배와 헌신과 봉사를 강조하며 밖으로 진리를 전도한다고 하고 안으로 신앙을 교육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복음적인 중심을 놓치고 나면 그 모든 말들과 열심과 전략은 참으로 허황된 것이고 심지어 미혹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쉬운 것을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하고 그 당연한 것을 붙잡자는 것인데, 왜 그게 그리도 어려운 것이 되어 있을까?

한 개인이 회개하고 생각과 행실을 바꾸어 신자가 되듯이 교회도 이 세상의 정신을 비판하고 본받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교회 내의 문화, 즉 생각, 판단, 기준, 목표, 방법 등은 사회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교회 내에 우리의 인간적 욕심과 안이함으로 인하여 사회의 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 부흥하는 길을 망각하고 사회단체로서 부흥하는 길을 추구한다. 복음을 값싸게 만들었고 세상의 성공을 끼워파는 듯한 모습마저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세속적이 되는가 하면 한편에선 종교적 위엄만을 찾아 강조하여 율법화되는 양극화된 모습이 동시에 드러난다. 그것도 역시 교회의 조직적 성공에 기여하기 때문이라 본다면 너무 아픈 반성일까? 어쨌든 이 책에 담긴 이 모든 관찰은 우리 신앙의 동기가 과연 순수한가에 집중된다. 애초에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려 할 때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 집단에서 갖게 되는 안이함과 집단중심적인 사고는 우리를 초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도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에게서도 멀어지게 한다. 신앙적 열심이 신앙의 근본을 배반하게 한다. 우리는 과연 이 세대 내에 발람의 교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책을 덮어도 맴도는 질문이다. 

이 글은 <쿠퍼> 313번째 서신(홍성사, 2015. 5)에 실린 것입니다.

